

한국 보건의료의 진단과 해법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한국 보건의료의 발전전략

일시: 2008.9.10.(수) 14:00~16:30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주최
건강정책포럼

후원
복지국가소사이터티,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 시민사회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 농민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진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교노동자연회, 행동하는의사회 □ 지역단체: 대전참여자치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모시는 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의료 민영화에 대한 논란과 국민적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의료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과 국민적 우려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의료 민영화의 실체는 무엇이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미칠 파급효과는 무엇일까요? 의료 민영화를 둘러싼 격론을 한 차례 거친 지금이야말로 의료 민영화 논란의 의미와 본질, 그리고 그 교훈을 차분하게 짚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 상반기, 건강보험은 사회적 논란의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양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아직도 '저부담-저급여-저수가'로 대별되는 구조적 악순환에 갇혀 국민의 명실상부한 건강안전망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으로는 현행 건강보험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국민의 명실상부한 건강안전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참여정부 이래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이 풍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간의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은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국민건강권마저 침해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국민건강권과 공존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서비스 분야의 발전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노동, 농민, 시민사회와 학계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한국 보건의료의 발전을 고민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 9월 10일

I. 발표

사회

김 윤 (서울의대 교수)

1. 의료 민영화의 본질과 함의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

2. 건강보험과 한국 보건의료의 발전전략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

3. 의료서비스 분야의 성장과 발전전략

윤태호 (부산의대 교수)

II. 토론

좌장

조흥준 (울산의대 교수)

토론자

신상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전혜숙 (민주당 국회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안기중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

김연명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이준영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정책위원)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